

2010년 5월 광주는 착잡하다

18일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은 광주는 착잡하다. 5월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맘껏 부르지도 못하고, 지상에서 가장 성대해도 모자랄 기념식을 반쪽으로 나눠 치르는 현실에 처하고 말았다. 아무도 정부와 5월 단체의 이견을 중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정치권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기념식 파행을 부추겼다. '대동세상'을 열자던 5월 열사들의 정신은 항쟁 30년 만에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날 하루 종일 비까지 내렸다.

〈관련 기사 3·6·7면〉

① 절반도 못채운 30주년 기념식

국가보훈처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인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박광태 광주시장, 유족, 관련단체 회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을 염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참석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이날 기념식은 30주년에 걸맞지 않게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

정된 이후 가장 조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제외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한 5월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공식 기념식에 대거 참석하지 않고 구묘역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치렀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몰려오던 장관 등 고위 관료들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까지 내려 2000여 좌석 중 절반 이상은 채워지지 못했다.



초라한 5·18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 행사장이 텅 비어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한데 반발한 5·18 관련단체들이 대거 불참, 미리 준비한 2000석의 좌석 가운데 절반 넘게 차워지지 못했다.

② 광주 아픔 치유 말 뿐이었나

5월단체가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표면상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배제된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5·18이 훌륭받는 것 아니냐는

강한 불만이 깔려 있다. 이 같은 불만은 이명박 정부의 5·18에 대한 접근 방식과 시각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됐다는 분석이다. 5월단체들은 이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2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를 보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을 상기하며, 발언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③ 정치권 '반쪽 5·18' 중재 외면

기념식이 반쪽짜리로 치러지는 과정에서 정부와 5·18 관련단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절차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구속부상자회, 5·18 구속자회 등 5월 단체들은 올 들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 본행사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광주지방보훈청과 5월 관련단체들이

단 한 차례 도여 협의를 했을 뿐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조차 "이 노래가 왜 안 되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엄숙해야 할 기념식장에서 노래 한 곡 부르나, 안 부르나를 갖고 분위기를 망친 그 미숙한 조정능력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에만 정신

/홍행기·이종행기자 redplane@

천안함 검출 화약 北어뢰 성분과 동일

오바마 "한국대응 신뢰"

천안함 침몰사건을 규명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대응과 조사 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5면〉

고위 관계자는 18일 "천안함의 절단면과 해저에서 수거한 금속 파편을 비롯한 화약성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어뢰에 의한 공격을 단정할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7년 전에 수거한 북한의 훈련용 어뢰 화약과 이번에 천안함에서 수거한 화약성분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해 연안에서 수거한 북한의 훈련용 어뢰는 단두는 없지만 프로펠러를 움직여 추진할 때 사용하

는 화약이 있으며 이 화약과 천안함 연돌(연통)과 해저 등에서 검출한 화약성분이 같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합조단은 최근 천안함 연돌과 해저 모래에서 어뢰 탄두에 사용되는 화약성분인 RDX를 검출한 바 있으나 훈련용 어뢰 추진화약 성분은 20일 오전 조사결과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 대응방향 등 한미동맹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허남석 곡성군수 후보 자해

'위치주적기' 소환 앞두고...생명 지장 없어

허남석 곡성군수 후보가 '조형래 곡성군수 후보 차량 위치주적기 부착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해를 시도했다. 〈관련 기사 3면〉

18일 새벽 5시40분께 허 후보가 곡성군 곡성을 자신의 집에서 왼쪽 팔목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52)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허 후보는 곧바로 곡성의 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께 전북 남원의 한 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허 후보는 금명간 '조형래 군수 후보 차량 위치주적기 부착 사건'을 수사중인 곡성경찰에 출석해 참고인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경찰서장 출신인 허 후보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보고 경찰의 자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허 후보의 동생은 임모(50·구속)

씨에게 2000여만원을 주고 위치주적기 부착을 시지한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허 후보의 동생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곡성=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일보 창립 60주년 기념
함평다이너스티 펜트리 탑급
VIP 6차 회원 모집

전국금액 1회 7천5백만원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부록 5
부록 6
부록 7
부록 8
부록 9
부록 10
부록 11
부록 12
부록 13
부록 14
부록 15
부록 16
부록 17
부록 18
부록 19
부록 20
부록 21
부록 22
부록 23
부록 24
부록 25
부록 26
부록 27
부록 28
부록 29
부록 30
부록 31
부록 32
부록 33
부록 34
부록 35
부록 36
부록 37
부록 38
부록 39
부록 40
부록 41
부록 42
부록 43
부록 44
부록 45
부록 46
부록 47
부록 48
부록 49
부록 50
부록 51
부록 52
부록 53
부록 54
부록 55
부록 56
부록 57
부록 58
부록 59
부록 60
부록 61
부록 62
부록 63
부록 64
부록 65
부록 66
부록 67
부록 68
부록 69
부록 70
부록 71
부록 72
부록 73
부록 74
부록 75
부록 76
부록 77
부록 78
부록 79
부록 80
부록 81
부록 82
부록 83
부록 84
부록 85
부록 86
부록 87
부록 88
부록 89
부록 90
부록 91
부록 92
부록 93
부록 94
부록 95
부록 96
부록 97
부록 98
부록 99
부록 100
부록 101
부록 102
부록 103
부록 104
부록 105
부록 106
부록 107
부록 108
부록 109
부록 110
부록 111
부록 112
부록 113
부록 114
부록 115
부록 116
부록 117
부록 118
부록 119
부록 120
부록 121
부록 122
부록 123
부록 124
부록 125
부록 126
부록 127
부록 128
부록 129
부록 130
부록 131
부록 132
부록 133
부록 134
부록 135
부록 136
부록 137
부록 138
부록 139
부록 140
부록 141
부록 142
부록 143
부록 144
부록 145
부록 146
부록 147
부록 148
부록 149
부록 150
부록 151
부록 152
부록 153
부록 154
부록 155
부록 156
부록 157
부록 158
부록 159
부록 160
부록 161
부록 162
부록 163
부록 164
부록 165
부록 166
부록 167
부록 168
부록 169
부록 170
부록 171
부록 172
부록 173
부록 174
부록 175
부록 176
부록 177
부록 178
부록 179
부록 180
부록 181
부록 182
부록 183
부록 184
부록 185
부록 186
부록 187
부록 188
부록 189
부록 190
부록 191
부록 192
부록 193
부록 194
부록 195
부록 196
부록 197
부록 198
부록 199
부록 200
부록 201
부록 202
부록 203
부록 204
부록 205
부록 206
부록 207
부록 208
부록 209
부록 210
부록 211
부록 212
부록 213
부록 214
부록 215
부록 216
부록 217
부록 218
부록 219
부록 220
부록 221
부록 222
부록 223
부록 224
부록 225
부록 226
부록 227
부록 228
부록 229
부록 230
부록 231
부록 232
부록 233
부록 234
부록 235
부록 236
부록 237
부록 238
부록 239
부록 240
부록 241
부록 242
부록 243
부록 244
부록 245
부록 246
부록 247
부록 248
부록 249
부록 250
부록 251
부록 252
부록 253
부록 254
부록 255
부록 256
부록 257
부록 258
부록 259
부록 260
부록 261
부록 262
부록 263
부록 264
부록 265
부록 266
부록 267
부록 268
부록 269
부록 270
부록 271
부록 272
부록 273
부록 274
부록 275
부록 276
부록 277
부록 278
부록 279
부록 280
부록 281
부록 282
부록 283
부록 284
부록 285
부록 286
부록 287
부록 288
부록 289
부록 290
부록 291
부록 292
부록 293
부록 294
부록 295
부록 296
부록 297
부록 298
부록 299
부록 300
부록 301
부록 302
부록 303
부록 304
부록 305
부록 306
부록 307
부록 308
부록 309
부록 310
부록 311
부록 312
부록 313
부록 314
부록 315
부록 316
부록 317
부록 318
부록 319
부록 320
부록 321
부록 322
부록 323
부록 324
부록 325
부록 326
부록 327
부록 328
부록 329
부록 330
부록 331
부록 332
부록 333
부록 334
부록 335
부록 336
부록 337
부록 338
부록 339
부록 340
부록 341
부록 342
부록 343
부록 344
부록 345
부록 346
부록 347
부록 348
부록 349
부록 350
부록 351
부록 352
부록 353
부록 354
부록 355
부록 356
부록 357
부록 358
부록 359
부록 360
부록 361
부록 362
부록 363
부록 364
부록 365
부록 366
부록 367
부록 368
부록 369
부록 370
부록 371
부록 372
부록 373
부록 374
부록 375
부록 376
부록 377
부록 378
부록 379
부록 380
부록 381
부록 382
부록 383
부록 384
부록 385
부록 386
부록 387
부록 388
부록 389
부록 390
부록 391
부록 392
부록 393
부록 394
부록 395
부록 396
부록 397
부록 398
부록 399
부록 400
부록 401
부록 402
부록 403
부록 404
부록 405
부록 406
부록 407
부록 408
부록 409
부록 410
부록 411
부록 412
부록 413
부록 414
부록 415
부록 416
부록 417
부록 418
부록 419
부록 420
부록 421
부록 422
부록 423
부록 424
부록 425
부록 426
부록 427
부록 428
부록 429
부록 430
부록 431
부록 432
부록 433
부록 434
부록 435
부록 436
부록 437
부록 438
부록 439
부록 440
부록 441
부록 442